

‘평창올림픽 평화 유산’ 계승...2020 평창평화포럼 성료

최문순 지사 “한반도 평화 위해 앞장설 것”

유승민 이사장 “평창에서 평화 실현 이어갈 것”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평화 유산을 계승하는 글로벌 평화 플랫폼인 2020 평창평화포럼이 3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성황리 폐막했다.

강원도·평창군·2018평창기념재단은 평창 알펜시아 일대에서 열린 포럼의 결과물인 ‘2020 평창평화포럼 결의안’을 채택해 이날 폐막식에서 발표, 전 세계를 향해 평화의 의지를 드러냈다.

결의안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관련된 각국 정부, 국제기구 및 세계 시민사회 모두가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구체·실질적 행동 동참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 실천 내용은 △한국전쟁 종전 선언과 평화조약 체결 △남북한 관문접선인 및 ‘평양공동선언’

합의 사항의 실질적 이행 촉구 △동해선·유라시아 철도 연결 대책 마련 △남북경제 협력 진전을 위한 인도적 지원과 개별관광 등 지지 △금강산 관광 재개 및 남북 공동 관광 구역 개발 국제적 관심 촉구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남북공동개최·남북 단일팀 구성 촉구 △DMZ의 국제 생태 평화지대 조성 방안 모색 △남북 접경 지역의 국제평화도시 조성 방안 모색 등이다.

이와 함께 한반도 평화구축의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세계 시민사회에 관심·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2회째를 맞은 이번 포럼은 전 세계 40여 개국에서 약 4000명이 참

석해 ‘실천계획: 종전(Action Plan: End the Korean War)’이라는 주제로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향한 생산·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도출하는 논의의 장이 됐다.

포럼에는 반기문 전 UN사무총장, 그로할름 브룬들란 전 노르웨이 총리,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 구닐라 린드버그 IOC위원, 할 존스 제네바리더십공공정책연구소 대표, 김연철 통일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이미경 코이카 이사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 최윤희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한왕기 평창군수, 유승민 2018 평창기념재단 이사장 등 스포츠, 경제, 사회 분야 전문가가 참여했다.

개막식 이후 스포츠, 경제, 생태, UN 지속가능발전목표의 4가지 주요 의제에 대해 기조세션, 특별세션, 동시세션 등 총 23개 세션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오갔다.



특히 세계 유일 분단도인 강원도는 남북간 평화와 신뢰가 지역 평화·번영, 접경지 주민 생존권과 긴밀하게 연결된 만큼 한반도 신경제 개발계획 및 DMZ 국제 평화지

대화 등을 집중 다뤘다. 최 지사는 11일 “깊은 논의를 통해 2020 평창평화포럼 결의안을 채택하게 됐다. 이를 통해 세계 평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앞장서

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평창올림픽에서 보여준 가능성이 현실이 될 때까지 평화의 땅 평창의 노력을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에이, 비번 바꿨네”...기생충 ‘와이파이 잡기’ 서울선 이제 그만

“에이, 뒷집 와이파이 비번번호 바꿨네” 아카데미 4관왕 영화 ‘기생충’에서 주인공 식구들이 ‘공짜 와이파이’를 쓰기 위해 다른 집의 와이파이 신호를 잡으려 노력하는 장면이다.

이런 장면은 오는 2022년 서울 시에서는 찾아보기 힘들게 될 전망이다. 세계 최초로 도시 어디서나 공공 와이파이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망이 구축되기 때문이

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2022년까지 서울 전 지역에 총 4237km에 이르는 자가통신망 ‘스마트 서울 네트워크(S-Net)’를 구축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부터 3년 동안 총 1027억원을 투입한다.

자가통신망은 이동통신사업자의 회선을 임대하지 않고 공공이 직접 구축하는 통신망이다. 임대망과 비교해 통신비용이 저렴하고

한번 자가통신망을 구축하면 모든 행정 분야에 무제한 연결이 가능하다.

시는 자가통신망과 함께 공공 와이파이 AP를 1만6330대 추가 설치해 서울 전역에 공공 와이파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공 와이파이를 현재 생활권 면적 31%에서 100%로 전면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이렇게 되면 시민 1인당 월 5만 2000원, 1년이면 최대 63만 원의

편익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전체로는 연간 3조8776억원의 사용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정책은 지난해 말 시가 온·오프라인 시민투표로 선정한 ‘2019 서울시 10대 뉴스’ 2위에 뽑히는 등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공공 와이파이에는 당시 투표에서 1만 9881표(6.2%)를 얻어 1위 따름이 (2만309표, 6.4%)와 근소한 차이를 나타냈다.

시는 현재 사업을 실시할 계획과 예산을 보고 있다. 설비를 구축할 장소와 도면을 정하고 물량 및 예산

을 구체화하는 단계다.

이후 올 8월까지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1단계 사업은 자가통신망 2883km, 공공 와이파이 AP 4400여대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1단계 사업을 통해 기존에 개별적으로 운영됐던 망을 통합해 단일망으로 연계할 계획이다”라며 “이후 2단계 사업은 예상대로 진행된다면 2022년 마무리할 수도 있고 조금 당겨질 수도 있다.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1

‘울산큰애기 SNS서포터즈’ 발대

울산 중구는 7일 오후 박태완 중구청장과 제2기 울산큰애기 SNS서포터즈 17명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큰애기 SNS서포터즈’의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SNS서포터즈는 중구를 주제로 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고, 원도심 등 다양한 지역 내 관광지 및 구정 소식을 인터넷 SNS 매체를 통해 소개한다.

중구는 지난해 8월 17기 울산큰애기 SNS서포터즈 17명을 선발해 6개월간 활동하면서 500여건의 블로그 포스팅과 30여건의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을 통해 울산 중구의 관광지와 관광콘텐츠를 홍보한 바 있다.

올해 서포터즈는 1월부터 12월개월간 울산 중구 지역 내 곳곳을 다니며 관광지와 관광자원 소개, 행사나 축제 안내 등 관광과 관련된 다양한 소식을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SNS 매체를 통해 홍보한다.

이들은 매일 최소 1건 이상에 대해 SNS로 홍보를 벌이며 각자가 원하는 주제로 울산 중구를 알리거나 집중적인 홍보가 필요한 관광 콘텐츠에 대해 다양한 SNS 매체를 활용해 전달하게 된다.

중구는 참여자들 가운데 왕성한 활동을 펼친 활동우수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생명연, 바이오 인프라서비스 가이드 발간

한국생명공학연구원(KRIBB·원장 김장성)은 바이오 인프라 서비스를 한 번에 확인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KRIBB 인프라서비스 활용 가이드’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생명연 실험동물자원센터, 국가영장류센터, 생물자원센터, 해외생물소재센터, 희귀난치질환연구센터(한국인간유전자은행), 바이오평가센터, 국가생명연구지원정보센터, 바이오상용화지원센터 등 8개 부서에서 개별 제공했던 서비스 관련정보를 고객에게 필요한 정보 중심으로 인프라서비스 유형별 정보를 종합해 연구기관, 대학, 기업, 병원 등에 제공한다.

인프라서비스 활용 가이드 생명연의 인프라 개방을 통한 바이오 산업 생태계 활성화의 일환으로, 바이오 인프라서비스에 대한 세부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산·학·연·병 고객들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생명연은 생명연구지원 및 이를

활용한 분석·평가 플랫폼으로 국내 연구기관, 대학, 기업, 병원에게 바이오 기초연구에서 상용화에 이르는 전주기 인프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KRIBB 인프라서비스 활용 가이드 발간으로 고객의 생명공학 R&D 수행에 필수적인 자원 공급과 정보 생산의 효율성을 제고해 연구자의 불필요한 노력과 시간을 줄이고 연구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생명연 바이오의약인프라사업부 김형진 부장은 “KRIBB 인프라서비스 활용 가이드 발간을 통해 개별 제공했던 인프라 서비스 정보를 수요자 중심의 종합 정보로 제공하면서 생명연이 바이오 연구개발 관련 인프라서비스 제공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RIBB 인프라서비스 활용 가이드는 생명연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뉴스1



어린이집 소속해오 강원 태백시가 관내 어린이집 24개소를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비한 실내 소독을 지난 11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경남사천 리미술허, 신종 코로나에 일본-제주 크루즈 입항취소 ‘수처리’ 전 개최

경남 사천 리미술허은 오는 28일까지 전시관 2층 제1전시실에서 최경수 작가의 ‘수처리(隨處樂)’ 전시회를 연다.

최경수 작가의 이번 40번째 초대개인전은 1994년 제2회 개인전부터 일구어 온 작가의 시대적 고민과 탐색, 조형적 실험을 나타낸다. 한의 정서를 신명과 해학으로 풀어내고 한국 전통의 미감에 관심을 두어 현대적인 감성으로 재해석하고 현실화하려는 작가의 고심이 묻어난다.

작품은 창공과 대지 위의 나무들, 인간의 실루엣과 그 앞에 놓인 타사발, 청화 백자주병, 옛 신라 토기 등 한국의 문화재급 그릇 등을 담고 있다.

미술관 관계자는 “수십 년간 하나의 화두로 작업에 매진해온 최경수 교수의 집념과 열정을 감상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크루즈선의 국내 입항을 한시적으로 금지함에 따라 2월 제주에 기항할 예정이었던 일본발 여객선 입항이 취소됐다.

제주도는 오는 24일 제주항 제8부두로 입항 예정이었던 네덜란드 극적선 ‘웨스테르담(MS Westerdam)’호가 기항을 취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웨스테르담호(8만2862톤)는 당초 15일 일본 요코하마항에서 승객 2362명, 승무원 817명 등 총 3179명을 싣고 29일까지 14일간 일정으로 크루즈 관광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제주에는 오는 24일 오전 8시 입항해 오후 5시까지 9시간동안 머물 예정이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0일 감염병 확산 장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크루즈선의 국내 입항 금지 방침을 결정했다.

이에 웨스테르담호의 크루즈 선사인 홀랜드 아메리카는 이날 바로 한국대리점인 협성해운을 통해 제주 입항을 취소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로써 2월 한달간 제주에 입항할 크루즈선은 전무하게 됐다.

3월의 경우 현재 3척의 크루즈선 입항 계획이 짜여있는 상태다. 3월19일 콜롬버스호(6만3786톤·여객정원 1817명), 20일 셀라브리티 밀레니엄호(9만933톤·2590명), 24일 웨스테르담호(8만2862톤·2362명) 등이다.

중국발 크루즈선은 2017년 3월 중순 이후 중국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에 따른 금한령 조치에 따라 한 척도 제주에 들어오지 않았다.

한편 지난해 제주 입항 크루즈선은 총 29척(제주항 27척·서귀포 크루즈항 2척), 크루즈 관광객은 총 4만4266명으로 집계됐다.

뉴스1

겨울철 이상 고온에 작물 생육관리 비상

보은군, 농작물 관리와 병해충 방제 당부

충북 보은군이 지난 겨울 이상 고온과 잦은 강우로 농작물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농가의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

11일 기상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보은군의 평균기온은 1.5도로 전년보다 2.3도 높았고, 강수량은 99.0mm로 전년보다 60.1mm 많았다.

겨울철 이상고온과 잦은 강수는 월동 병해충의 생존율을 높인다. 병해충의 발생 시기도 앞당긴다. 이 때문에 농작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 올해는 병해충 방제를 평년보다 서둘러야 한다.

특히 농작물이 웃자라 갑작스러운 한파에 냉해를 입을 위험도 커 피해를 막기 위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맥류는 배수가 불량한 곳은 배수로를 열어주고, 마늘과 양파는 과습 피해가 나타날 때 비닐 멀칭을 일부 걷고 배수로를 정비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과수의 병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나무 밑동을 벗겨 등 보온재로 감싸주고, 병해를 우려하는 포장에서는 가지치기를 늦춰 진행하면 피해 방지에 도움이 된다.

보은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겨울철 이상기온으로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니 농작물 월동관리 요령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피해를 최소화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뉴스1

‘진주축제’ 시민이 직접 기획 참여

경남 진주시 축제에 시민이 직접 기획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된 ‘2020년 축제기획 시민협의체’가 10일 시청 문화강좌실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시민협의체는 △축제 구역 확대 △시민참여 영역 확대 △야간 공연장 소음 및 교통불편 해소방안 △이색 프로그램 발굴 △축제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등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천예술제 70년사 사진수집, 챗봇을 활용한 카카오톡 축제이정 등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